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삼천리강도 위에 통일강성국가로 건설하도록 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언명 하셨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도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조국통일성업 실현을 락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는 민족분열의 비극이 절제서 리어있는 판문점에 새겨진 그이의 발자취에서 력력히 읽을수 있다.
주 체 1 0 1 (2012)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을 찾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친필비를 돌아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회고하시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

추억이 아름다운 인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추억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여 더욱 아름답게 살려는 각오가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해마다 6월이 오면 6.15시대에 펼쳐졌던 격동과 환희의 사변들이 더욱더 되새겨지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측응원단의 한 성원이 되어 부산에서 보낸 10여일간이 한생애 잊지 못할 나날들로 안겨오곤 한다.
사람의 한생애는 16일간이란 어찌보면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짧은 나날에 나는 삼천리강도에 맥맥히 넘쳐흐르는 민족의 넋을 보았으며 북과 남은 가를때야 가를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가슴뽀뽀이 절감하였다.
2002년 9월 우리 응원단은 《만경봉92》호를 타고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부산을 향해 떠났다. 부산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100여척의 배에 통일을 부르짖고 환영하는 시민운동단체성원들, 대대포항구에서 《 환영 북측응원단》, 《반갑습니다》 등의 구호를 들고 우리 응원단을 열렬히 환영한 부산시민들, 만나자마자 정이 들고 한평생이 된 남녘의 《아리랑응원단》, 경기장마다에 메아리친 《조국통일》, 《우리는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해 기울이시는 그이의 열렬한 민족애와 두터운 신의, 고결한 의리에 의해 지난해 전 남조선 현대그룹 정몽헌회장 사망 1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금강산에서 추모식이 거행되었고 그이께서는 보내신 구두친서도 전달되였다.
조국통일운동의 험한 전진을 위한 방략과 방도들을 명쾌하게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오늘 통일을 열망하는 겨레의 발걸음을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하신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돛이 되는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을 명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의 리정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북남공동선언리선언으로 온 겨레를 불리일으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념원과 확고부동한 의지,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밝아올 통일조국의 그날을 굳게 확신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시 6월에 부르는 노래
김영일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 가슴에 뜨겁게 안겨오는 영상
해마다 6월이 오면
더욱더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승업한 영상이여
어이 잊을수 있으랴
남측의 사절을 맞으시려
평양비행장에 나오셨던 장군님모습
감격과 격동의 6.15시대
그 시대의 첫 자욱을 제시여
겨레의 가슴을 울려주시던 장군님모습
우리 겨레에게 통일6.15를 주신
장군님을 우리러 부르던 6월의 노래
뜻과 정 하나로 합쳐 터치던 통일의 노래
그 누구도 막을수 없고
호르는 세월도 지울수 없거니
6.15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며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자들
손바닥으로 햇빛 가리울수 없듯이
6월의 진리는 어둠에 물울수 없으리라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통일의 그날 그리며
겨레는 잊지 않으리라 6월의 환희
오늘도 매일도 통일의 그날까지
겨레가 부르고부르는 6월의 노래는
아, 장군님 못 잊는 흙모의 노래
우리 민족 하나되는 통일의 노래
여러

시 말해 보자 겨레여
김태룡
가슴을 터놓고
진실과 걱정을 터놓을수 있는
한형제 한동포인 남녘의 겨레여
6월을 맞는 오늘 우리 말해보자
6.15, 6.15가 없이 살수 있는가
갈라져 산 기나긴 분열세월
그 세월의 피눈물을 가져준 6.15

꿈에서나 그해보던 겨레가 사는 땅
꿈같이 밝아보는 환희를 주었다
오, 우리 민족끼리는
통일이 그 하나의 기발아래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던
귀중한 그 날과 날들
그 누가 가로막았느냐
그 누가 한사코 없애려 하고있느냐
다시 만날 때일을 두고
홍분으로 잠 못들던 그 밤을
우리 다시 눈물에 잠글수 없노라
맞부빈 가슴에 일어번지던
혈육의 정 뜨거운 동포애를
강산엔 신록이 짙고
산과 들엔 꽃들이 만발하건만
내 마음은 1월
눈내리던 새해의 그날에 섰노라
《흙수통일》과 《체제통일》
그 대결홍심으로
반통일분자들 그 아무리
《통일대박》, 《드레즈멘선언》
온갖 요설을 꾸며대고 지어내도
겨레는 믿지 않는다
언제가고 실현될수 없는
그 녀두리 그 망상을
통일의 환희 이 강도에 가져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단합하고 나아가자
오, 우리 민족끼리!
그 뜻을 따르고 그 녀에 살면
통일의 새날이 온다는것은
겨레의 신념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리라
겨레의 이 신념은
우리 민족끼리를 지켜주시고 빛내
주시는
우리의 원수님께서 계시여
6.15세상은 반드시 오리라
삼천리 이 강도엔
통일의 아침 밝아오리라

시 통일의 아침은 밝아오리라
김송림
강산엔 신록이 짙고
산과 들엔 꽃들이 만발하건만
내 마음은 1월
눈내리던 새해의 그날에 섰노라
《흙수통일》과 《체제통일》
그 대결홍심으로
반통일분자들 그 아무리
《통일대박》, 《드레즈멘선언》
온갖 요설을 꾸며대고 지어내도
겨레는 믿지 않는다
언제가고 실현될수 없는
그 녀두리 그 망상을
통일의 환희 이 강도에 가져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단합하고 나아가자
오, 우리 민족끼리!
그 뜻을 따르고 그 녀에 살면
통일의 새날이 온다는것은
겨레의 신념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리라
겨레의 이 신념은
우리 민족끼리를 지켜주시고 빛내
주시는
우리의 원수님께서 계시여
6.15세상은 반드시 오리라
삼천리 이 강도엔
통일의 아침 밝아오리라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는 하나다》를 웨치는 북과 남의 응원단

한 성원으로서는 나라의 통일에 대해 다시금 자각하게 되고 통일을 위해 작아도 무엇이든 해야 하겠다는 각오로 마음이 달아오른 한다.
지금 북남관계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동족대결책동으로 하여 최대로 악화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고 《체제통일》망상에 사로잡혀 동족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것이다.
온 겨레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북과 남이 합의한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갈 때 환희와 격정으로 가득찼던 6.15시대를 되찾을수 있는것이다. 12년전 부산땅에 지졌던 민족화해와 단합의 성화가 삼천리강산에 활화산처럼 타번지게 해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는,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범한 한 녀성으로서 12년전의 감격을 소중히 안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길에 작은 힘이나마 바치려는 마음뿐이다.
국립연극단 김순영